

에도 시대 여성교육과 리터러시*

-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往來物)에 주목하여

이 미 숙**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에도 시대(江戸時代)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에 주목하여 에도 시대 여성교육의 양상 및 여성의 ‘리터러시’에 관해 고찰한 것이다. 먼저 에도 시대를 전후하여 여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테라코야’(寺子屋)라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왕래물’이라는 교과서로 여성들이 획득한 문자 해득이라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용 ‘왕래물’을 통해 어떠한 여성지식을 획득하였는가 하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측면 또한 함께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여대학’으로 대표되는 여성용 ‘왕래물’은 여성의 문자 해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성의 성별지식을 재생산하였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같은 유교적인 여성지식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가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또한 본고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문명연구사업단 <젠더와 리터러시>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이경하)의 결과물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리터러시, 에도 시대 여성교육, 테라코야, 왕래물, 여성용 교과서, 여대학
Literacy, women's education in Edo Period, Terakoya, Ouraimono, women's textbook, Onnadaigaku

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의 『와조쿠도지쿤』(和俗童子訓) 권5 「교여자법」(敎女子法, 1710), 『여대학 다카라바코』(女大學寶箱, 1716) 전권, 그리고 여성 교훈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여대학』 순으로 갈수록 더욱 더 여성에게 유교이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종속화하려는 여성지식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첫째로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가 읽고 쓰기라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시대의 규범 및 가치관이 반영된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 둘째로 에도 시대의 여성교육은 여성에게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추게 하여 가족제도를 존속·강화시켜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집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던 에도 시대 이전의 소수에 한정되었던 여성교육을 확대하여 균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여성들이 읽고 쓰기 능력과 교양을 갖추면서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의식 또한 제고되었다는 측면 또한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에도 시대 여성교육 및 여성의 리터러시는 봉건제사회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머리말

일본 에도 시대(江戸時代, 1603-1867) 후기의 희작(戯作) 작가인 시키테이 산바(式亭三馬, 1776-1822)의 골계본(滑稽本)인 『우키요부로』(浮世風呂, 19세기 초) 3편 권상(卷之上)에는 10-11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 둘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기술되어 있다.

나이가 열이나 열하나쯤 되는 소녀 둘이 되바라진 모습으로 웃을
입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니,

“오카쿠야. 요전에는 연습(稽古)을 쉬게 되어 좋구나.”

“아아, 너도니? 나도 연습을 쉬는 게 그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정말로 정말로 가장 좋아. 그래서 설날이 다가오는 게 기대된단다. …… 네 어머니도 마음씨가 좋으니까 좋겠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강해서 무척대고 야단치셔. 좀 들어보렴.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습자 사범님(手習のお師さん)께 가서 책상을 꺼내놓고 와서, 그 다음에는 샤미센 사범님(三味線のお師さん) 댁에 아침연습을 하러 가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밥을 먹고 무용연습을 하러 갔다가 습자하러 갔다가, 오후 두시쯤 마치고 와서 목욕탕에 다녀오면, 바로 금 사범님(お琴の御師匠さん)께 갔다가, 돌아와서는 샤미센이나 춤의 복습이란다. 그동안 잠깐만 놀고, 날이 저물면 또 금 연주의 복습이란다. 그래서 놀 틈이 전혀 없어서 너무 싫어 죽겠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무척 귀여워하고 마음이 좋아서, 어머니가 복습, 복습 하며 말씀하시면, 무슨 그리 귀찮게 말할 것은 없다. 저 마음대로 하게 두어도 이렇게 저렇게 익힐 테니 그냥 놓아두는 게 좋아. 봉공(御奉公)하러 가기 위한 연습이니, 조금만 익히면 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머니는 엄격해서 말야, 뭐라고요, 연습하는 정도라면 몸에 배이도록 익히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자아이는 내 책임이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¹⁾

위의 인용은 도시의 상인·장인 계층인 조닌(町人) 계층의 딸로 추정되는 오카쿠(お角)라는 여자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러 다니는 고충을 털어놓는 장면이다. 에도 시대 경제력 있던 조닌 집안 여성교육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데다 교육 내용 및 교육 목적, 그리고 여자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모친이라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literacy)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오카쿠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때까지 쉴 틈 없이

1) 式亭三馬 著, 神保五彌 校注(1989), 『浮世風呂 戯場粹言幕の外 大千世界楽屋探』, 新日本古典文学大系 86, 東京: 岩波書店, pp. 161-162.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한다.

샤미센, 무용, 습자, 금(琴)을 배우고 복습하는 목적은 무사집안에 일하러 들어가는 무가 봉공(武家奉公)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도 시대 중상류 상인집안에서는 무사집안의 격식 있는 가풍이 바람직한 본보기로 여겨졌다. 그 때문에 무가 봉공은 서민 여성이 교양과 행동거지, 처신 등 예의작법(禮儀作法)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어 결혼할 때 좋은 조건이 되었다. 결국 『우키요부로』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도 시대 여성교육은 여성이 좀 더 나은 혼처를 찾아 신분 상승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습자교육을 통한 기본적인 문해력(文解力) 획득과 춤과 악기 연주 등 일정 정도의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었다. 또한, 오카쿠가 습자, 즉 글씨를 쓰고 읽기를 집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자 사범님’(手習のお師さん), 즉 ‘데라코야’(寺子屋) 또는 ‘데나라이도코로’(手習所)²⁾라는 민간 교육기관에 가서 배운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즉 에도 시대에는 남자아이만이 아니라 여자아이 또한 집 밖의 교육기관에서 초보적인 문자교육을 받았고, 이것이 대중적인 희작문학 텍스트에 묘사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 에도 시대 여성교육 연구의 주류를 이룬 것은 ‘여대학’(女大學)³⁾으로 대표되는 여성 교훈서를 둘러싼 고찰이었다. 그 주된 내용은 유교 이념에 입각하여 여성을 가부장제 사회의 일원, ‘이에’(家)를 지탱하는 일원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여성 교훈서, 여성교육에 대한 비

2) 에도 시대 민간 교육기관인 ‘데라코야’(寺子屋)는 관서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불린 명칭이며, 관동 지방에서는 ‘데나라이 사범’(手習の師匠) 또는 ‘데나라이도코로’(手習所)로 일반적으로 불리었다. ‘데라코야’의 학생은 ‘데라코’(寺子) 또는 ‘후데코’(筆子)라고 하며 ‘데나라이도코로’의 학생은 ‘데나라이코’(手習子)라고 하였다.

3) ‘여대학’이라는 서명은 3절에서 상술하겠지만 『여대학 다카라바코』(女大學寶箱)에서 처음 나왔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면서 핵심 부분인 「여대학」을 떼어내 그대로 편찬하거나 또는 다른 내용을 첨가하여 ‘여대학’이라는 표현을 넣은 서명으로 출간하는 책이 많아졌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서적 일반을 가리킬 때 ‘여대학’(또는 ‘여대학’류)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판이었다.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여대학평론 신여대학』(女大學評論 新女大學, 時事新報社, 1900)이 물꼬를 튼 ‘여대학’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인 인식은, 『여대학』 20개조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여자를 가장 완전하게 예속화한 여훈서”로 정의한 나카가와 켄노스케(中川善之助) 씨의 견해⁴⁾, “읽기·쓰기라는 기초 학습을 매개로 하면서 근세 봉건사회 아래 가족제도의 존속·강화를 지향하여, 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행동규범과 함께 넓은 범위에 걸친 교양을 제공하려는 본보기”라고 지적한 ‘여대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꼽히는 이시카와 마쓰타로(石川松太郎) 씨의 견해⁵⁾ 등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에도 시대 여성교육 및 여성의 리터러시는 근대적인 젠더의 관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제사회 속에서 여성이 문해력을 획득하고 문예적인 교양을 쌓으며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세계관을 확장해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며, 본고는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가 지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문식성’(文識性) 또는 ‘문해력’(文解力), 일본에서는 ‘식자’(識字)라는 표현으로 번역되는 ‘리터러시’는 일차적으로 ‘읽고 쓰기 능력’을 의미하지만, 사회제도의 발전과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아트 리터러시 등 그 의미와 범위는 확장을 거듭하여왔다. 리터러시는 크게 ‘기능적 리터러시’와 ‘문화적 리터러시’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리터러시’는 “간단한 문장이나 지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활동, 사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읽고 쓰기·계산 능력”⁶⁾이라는 일차적

4) 中川善之助(1952), 『女大學批判』, 東京: 河出書房, p. 29.

5) 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學集』, 東洋文庫 302, 東京: 平凡社, p. 303.

6) 松塚俊三・八鍬友広 編(2010), 『識字と読書—リテラシーの比較社会史』, 京都: 昭和堂, p. 3.

인 의미와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읽고 쓰기에 관한 기능이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기능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까지 포함”⁷⁾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리터러시’는 “읽고 쓰기 능력을 획득한 데 수반하여 읽고 쓰기 능력 그 자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문화와 교양의 질을 묻는 완전히 새로운 리터러시의 개념”⁸⁾으로서 “공통의 지식이나 문화의 내용,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에도 시대 여성교육의 양상 및 여성교육의 교과서인 여성용 ‘왕래물’, 그중에서도 특히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에 주목하여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데라코야’라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왕래물’이라는 교과서로 여성들이 획득한 문자 해득이라는 ‘기능적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을 통해 어떠한 여성지식⁹⁾을 획득하였는가 하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측면 또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대학’류로 대표되는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은 여성의 문해력 획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성의 성별지식¹⁰⁾을 재생산하였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종래 에도 시대 교육에 관한 연구는 1929년에 출간된 이시카와 겐(石川謙)의 『일본서민교육사』(日本庶民教育史, 刀江書院)를 시발점으로 하여 ‘데라코야’(또는 ‘데나라이도코로’. 이하 ‘데라코야’로 통일)라는 민간 교육기관과 그 교과서인 ‘왕래물’의 분류 및 분석 등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사회학 및

7) 小柳正司(2010), 『リテラシーの地平』, 岡山: 大学教育出版, p. 49.

8) 小柳正司(2010), pp. 123-124.

9) 본고에서 쓰고 있는 ‘여성지식’이란 여성이 획득한 지식, 여성에게 그 사회가 의도적으로 획득하도록 만든 지식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10) 이경하 씨에 따르면, ‘성별지식’이란 “성차(性差)에 관한, 즉 신체적 차이의 의미를 형성하는 지식”으로서의 ‘젠더’를 의미한다.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2011), 『내훈』, 문명텍스트 5, 파주: 한길사, p. 17.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여성교육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들 또한 근래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데라코야’와 ‘왕래물’에 관한 몇몇 연구¹¹⁾를 찾아볼 수 있지만 여성교육의 측면, 여성의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본고는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 고찰을 통해, 당대 여성의 리터러시가 읽고 쓰기 능력이라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시대의 규범 및 가치관이 반영된 역사성을 띠고 있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중세 성별지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에도 시대 일본 사회 및 문화의 특수성의 일단(一端)을 조망하고자 한다.

2. 에도 시대 교육의 기저, ‘데라코야’와 ‘왕래물’

에도 시대 교육의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서민교육의 상징인 ‘데라코야’는 에도 시대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산물로 대두되고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이시 마나부(大石學) 씨에 따르면, 에도 시대는 문자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추동한 것은 무사와 농민의 병농 분리(兵農分離)였다. 에도 시대 이전의 중세 무사는 무사(兵)와 백성(百姓, 農民)을 겸하는 병농 미분리 상태였다. 그러나 전쟁이 없어지면서 무사들은 행정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은 봉행(奉行)이나 대관(代官) 등 막부(幕府)나 번(藩)의 관리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주판을 튕기는 등 관료로서

11) 소동호(1982), 『日本 近世 庶民教育의 發達(II)－寺子屋의 道德教育과 庶民社會의 道德에 關하여－』, 『인문논총』 10권,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여신호(2010), 『전 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서민교육의 중심 寺子屋－』, 『교육문화연구』 제16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신현정(2014), 『서간체 교재를 통한 데라코야(寺子屋) 습자교육의 실제적 의의』, 『한국교육학연구』 20권 3호, 안암교육학회 등.

종사하였다. 병농 분리 이후 무사는 조카마치(城下町)라고 불리는 시가지에 살면서 관료화되고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생산 활동을 스스로 관리하게 되면서 무사와 농민은 문서로 연결되는 관계로 변화하였고, 에도 막부와 제후인 ‘다이묘’(大名)의 지방 영지 또한 문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었다. 에도 시대는 공문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치주의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유학, 특히 주자학이 널리 보급되어 사회의 상하 질서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각 번에는 무사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번교’(藩校)와 서민층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향학’(郷學) 또는 ‘향교’(鄕校)라는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를 전후하여 이들 상급 교육기관과는 달리 보다 규모가 작은 민간 초급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¹²⁾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데라코야’이다.¹³⁾

즉 에도 시대 후기에 서민계층 사이에서도 문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첫째로 전기 상업자본이 대두·발전되었고, 둘째로 막부와 번이 문서 사용으로 영민(領民)의 노동과 생활을 일원적으로 지배·통제하려는 데 부응하여 서민 또한 문자학습이 필요하였기 때문¹⁴⁾이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에’ 제도의 성립으로 집안을 잘 이어나가기

12) 그러나 에도 시대 말기까지 ‘데나라이도코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오사카, 에도, 교토라는 도시에 집중되었고 오늘날의 나가노 현(長野県)인 시나노(信濃)와 같은 특정 지방에 집중됨으로써 지역에 따른 문화의 격차를 고정화한 측면도 있었다. - Richard Rubinger 著, 川村肇 訳(2008), 『日本人のリテラシー』, 東京: 柏書房, p. 207.

13) 大石学(2007), 『江戸の教育力』, 東京: 東京学芸大学出版社, pp. 19-21, pp. 30-33. 1883년 문부성의 지시로 ‘데라코야’의 실태를 조사한 『일본교육사자료』(日本教育史資料, 文部省 編, 1890-1892)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 총계 1만 5512곳에 이르는 ‘데라코야’가 있었고 경영자 중 무사는 3051명, 승려는 2545명, 평민은 5330명이며, 그중 여성이 경영하는 ‘데라코야’는 179곳이었다. - 脇田晴子 他 編(1987), 『日本女性史』, 東京: 吉川弘文館, p. 151.

14) 石川松太郎(1978), 『藩校と寺子屋』, 東京: 教育社, pp. 30-31.

위해서는 기본적인 읽고 쓰기와 셈하기가 필요하였다는 점¹⁵⁾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연발생적으로 민간 교육기관인 ‘데라코야’가 발전하게 되었고, 인쇄술과 출판문화의 발달로 가나 문자로 쓰인 책들이 출판됨으로써 지식 또한 서민층으로 보급된 것이다.

‘데라코야’ 학생인 ‘데라코’가 다니는 ‘집’, 즉 ‘데라코’(寺子)와 ‘야’(屋)의 합성어인 ‘데라코야’(寺子屋)의 기원은 전국 시대 무장들이 자제를 사원에 맡겨 교육시킨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데라코야의 사범은 초기에는 승려가 일반적이었지만 차츰 토착 무사, 의사, 마을의 관리급 농민이나 조닌, 그리고 신관(神官) 등이 경영하며 가르치는 일이 많아졌다. 에도나 오사카(大阪) 등의 대도시에는 여자 사범도 많아, “에도는 세 명에 한 명이 여자 사범(女師匠)”¹⁶⁾이었다고 한다.

‘데라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습자 사범인 사사야마 바이안(笹山梅庵)이 저술하여 1695년 오사카에서 간행한 『데라코제회 규칙』(寺子制誨之式目)이다. 3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데라코야의 교칙”¹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습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데라코’들이 염수할 주의사항이나 마음가짐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 제1조에는 기본적인 문해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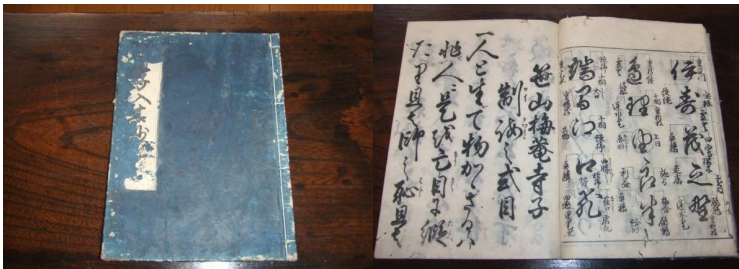
사람으로 태어나 글을 쓸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장남에 비유한다. 한편으로는 스승의 치욕이며 한편으로는 부모의 치욕이며, 모두 다 그리하여 그 몸의 치욕이다. 세 살 아이의 마음이 백 살까지라고 한다. 뜻을 세워 이 치욕을 잊지 말고 습자(手習)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¹⁸⁾

15) 高橋敏(2007), 『江戸の教育力』, 東京: 筑摩書房, p. 18.

16) 石川松太郎(1978), p. 160.

17) 小동호(1982), p. 66.

이처럼 제1조에서 “글을 쓸 수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습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을 통해 ‘데라코야’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에도 시대 서민 교육의 목표가 사회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문해력 획득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데라코야’에서 일과의 대부분은 ‘습자’(手習) 연습에 쓰였고 학생의 연령이나 학습 진도, 그 집안의 직업에 맞춰 본보기의 내용은 제각각 달랐다. ‘습자’는 단순히 글자를 능숙하게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글자를 익히고 그 본보기를 읽음으로써 지식을 획득하고 예의범절까지 익히도록 하여, 서민의 자제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읽고 쓰기를 통해 습득하도록 한 것이다. “습자는 근세 서민 자제의 인격 형성을 근간에서 지탱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¹⁹⁾이었던 것이다.



[그림 1] 『데라코 제회 규칙』(寺子制誨之式目) 표지와 제조

<http://buyee.jp/item/yahoo/auction/d140497200>에서 전자재(2015.09.16. 검색)

‘데라코야’에서는 맨 처음 『이로하』(いろは)를 통해 가나 문자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한자, 마지막으로 문장으로 표현된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였다. 즉 ‘데라코야’의 교육은 ‘읽고 쓰고 셈하기’라는 기

18) 石川松太郎(1978), p. 139에서 재인용.

19) 久保田信之(1988), 『江戸時代の人づくり－胎教から寺子屋・藩校まで』, 東京: 日本教文社, p. 72.

본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신분과 직업에 따라 사회규범과 예의작법, 마음가짐 등을 익히고 직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익히는 지식형성까지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92-1573) 전기에 나온 대표적인 왕래물인 『데이킨 왕래』(庭訓往來)로는 경어표현이나 때에 따른 인사말을 익히고, 『진코키』(塵却記)로는 산술을 공부하고, 『구니즈쿠시』(国尽)로는 각 지방 이름을 익히고, 상인의 자제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쇼바이 왕래』(商売往來)로 상거래에 필요한 용어나 화폐 단위, 상품명, 상인의 마음가짐 등을 배우고, 농촌에서는 『노교 왕래』(農業往來), 어촌에서는 『후나카타 왕래』(船方往來) 등을 교재로 사용하여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²⁰⁾

‘데라코야’의 교과서인 ‘왕래물’(往來物)은 표현 그대로 원래 왕복 서간을 의미하는 말로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 후기에 귀족집안에서 서간문례집(書簡文例集), 즉 서간문의 모범적인 예를 모아 편찬한 데서 비롯되었다. 에도 시대 이전에 편찬된 왕래물은 ‘고왕래’(古往來)라고 하는데, 11세기에 후지와라 아키히라(藤原明衡, 989-1066)가 지은 『메이오 왕래』(明衡往來)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200여 통의 서간을 모아 정월부터 선달까지 시간순으로 구성한 것으로 습자의 본보기도 겸하였다. 그러다가 에도 시대에 들어와 교육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내용의 초급 교과서 일반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왕래물이 초급 교과서로 자리매김된 것은 원래의 목적이 각종 ‘문서작성’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었기 때문이며, 문자를 습득하며 지식을 획득하게 되면서 에도 시대 후기에는 ‘지식 교수’(知識教授)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들이 편찬되게 되었다. 즉 에도 시대 ‘데라코야’ 등에서 사용하던 교과서인 왕래물은 ‘문자 습득’과 ‘지식 형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²¹⁾, ‘기능적 리터러시’와 ‘문화적 리터러

20) 中江克己(2007), 『江戸の躰と子育て』, 東京: 祥伝社, pp. 153-154.

21) 八鍬友広(2013), 『明治期の往來物に関する研究—書式文例集の展開—』, 『東北大

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도 시대 여성용 '왕래물' 또한 이와 같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 에도 시대의 여성교육과 여성용 '왕래물'

에도 시대 여성교육은 비록 경제력 있는 무사나 조닌, 그리고 농민 집안의 여성에 한정된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여성들의 교육 또한 남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집 안을 벗어나 '테라코야'를 장(場)으로 하여 저변을 넓혀 나아갔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읽고 쓰기 능력을 키우는 '습자'였다.



[그림 2] 『여대학 사카에 문고』(女大學榮文庫) 속표지(왼쪽) 및 제1항 「습자와 독서(手ならひ物よみの事, 오른쪽 위). 도쿄가쿠게이 대학(東京学芸大学) 소장

여성교육에서 습자가 지니는 필요성과 의미에 관해서는 여성용 '왕래물'의 하나인 『여대학 사카에 문고』(女大學榮文庫) 제1항 「습자와 독서(手ならひ物よみの事)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 第62集 第1号,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pp. 1-2.

습자는 남녀 할 것 없이 평생의 보물로서 반드시 어릴 때 배워야만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는 부끄러워 배울 수 없다. 특히 여자는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거나, 또는 아이를 갖는 등 하여 더욱더 배울 만한 틈도 없다. 두 눈을 똑바로 지니고 있으면서 한 글자 한 점을 읽을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편(便)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 등이 있어도, 쓸 수가 없다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 다른 예(藝)는 어떠한든, 습자(手習ひ)와 독서(物よみ)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여대학 사카에 문고』는 권두에 삽화와 함께 여자가 지켜야만 할 6개 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 제1항목에서 습자와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여대학’류의 여성 교훈서에 이 항목이 결여되어 있고 ‘여대학’이 가장장적인 유교적인 여성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텍스트로 인식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대학 사카에 문고』의 이 대목은 에도 시대 여성 교육을 살펴볼 때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여성교육관은 『여대학 사카에 문고』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 있어 습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여대학’류의 모태로 간주되고 있는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의 『와조쿠도지쿤』(和俗童子訓, 1710) 권5 「교여자법」(教女子法) 18개 조 가운데 2조와 8조에도 명시되어 있던 바였다.

- 여자를 키우는 데도 처음에는 대체로 남자와 다를 바 없다. 여자는 다른 집안으로 가서 타인을 섬기는 자이기에 특히 부덕(不德)하여서는 시부나 남편의 마음에 들기 어렵다. …… (2조)
- 일곱 살부터 가나(和文)를 배우게 하고 또한 남자 글자(漢字)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음란하지 않은 옛 와카(和歌)를 많이 읽게 하고 풍아지도(風雅之道)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이 또한

남자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수많은 구, 짧은 것 등을 많이 읽어 외우도록 한 뒤 『효경』의 첫째 장, 『논어』의 학이편, 조대가(曹大家)의 『여계』(女誡) 등을 읽도록 하여, 효·순·정·결(孝·順·貞·潔)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 열 살 때부터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규문 안에만 있게 하고 베짜기와 바느질, 길쌈 기술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혹여 음란한 것을 듣게 하고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또한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 그 표현은 좋아하지만 그 같은 음속(淫俗)한 일을 기술한 책은 일찍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여자 또한 글자를 바르게 쓰고 산수를 배워야 한다. 글자를 쓰고 계산을 하지 못하면 집안일을 기록하고 재산을 계산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8조)²²⁾

『교여자법』에 나타난 여성교육에 대한 견해는 여성의 부덕(婦德)과 효·순·정·결이라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규범과 자질, 여성이 익혀야 할 노동 등을 언급하고 있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갖추어야 할 유교윤리를 강조하는 여성 교훈서의 성격을 명확히 띠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교육이 남성교육과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기에 여성문자인 가나는 물론이고 남성문자인 한자까지 배우도록 해야 하며, 외카를 많이 읽어 교양을 쌓아야 하고, 글자를 바르게 쓰고 산수를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 기술에서는 에도 시대 이전의 여성교육관과는 다른 선진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교육과 교양의 용도를 집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읽고 쓰고 셈하고 교양을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가이바라 에키켄의 인식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여자법』에 나타난 여성교육, 특히 습자교육에 대한 견해가 『여대학 사카에 문고』 등에 이어

22) 石川松太郎 編(1977), p. 6, p. 11.

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도 시대 이전에도 여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습자교육, 즉 ‘데나라이’(手習)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여성교육에 대한 언설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류귀족 여성들이 당대의 가나 산문문학을 이끌었던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텍스트인 『마쿠라노소시』(枕草子, 990년 이후)와 『무라사키시키키부 일기』(紫式部日記, 1110년경)에는 여성교육 및 여성의 문자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무라카미(村上) 천황 치세 때 선요전 여어(宣耀殿女御)로 아뢰었던 분은 고이치조(小一条) 좌대신 맥의 따님이셨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리오. 아직 아가씨로 불리셨을 때 부친인 대신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첫째로는 습자를 하세요. 다음으로는 칠현금을 다른 사람보다 능숙하게 타겠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는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와카 20권을 전부 다 암송하실 수 있도록 학문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유념해두시고 ……”(『마쿠라노소시』 제21단)²³⁾
- 커다란 책장이 한 쌍 있는데 빈 틈 없이 쌓여 있는 것은, 한 군데에는 옛 와카와 모노가타리(物語) 책이 뭐라 할 수 없이 별레 소굴이 되어버려 기분 나쁘게 기어 달아나기에 얼어 볼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한쪽에는 한문서적들이, 각별히 소중한 여겨 소장하였던 사람 또한 세상을 뜬 뒤에는 손을 대는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그것들 한문서적을 너무 무료하여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한 권 두 권 꺼내어 보는 것을, 시녀들이 모여들어 “주인님께서는 이러하시니 박복한 것입니다. 대체 어떠한 여자가 한문(真名)으로 쓴 서책을 읽나요. 옛날에는 여자가 불경을 읽는 것조차 사람들은 말렸어요”라며 험담하는 것을 듣는데도, 이리저리 길흉을 따지는 사람이 장래에 장수한 듯하

23) 松尾聰・永井和子 校注・訳(1997), 『枕草子』,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18, 東京: 小学館, pp. 53-54.

다는 예들을 아직 본 적도 없답니다 하고 말해주고도 싶지만
배려가 없는 행동인 듯싶고, 시녀들이 말하는 것 또한 일리가
있다.(『무라사키시키투 일기』)²⁴⁾

『마쿠라노소시』의 인용은, 좌대신 후지와라 모로타다(藤原師尹)가 훗날 무라카미 천황(村上天皇, 재위 946-967)의 여어(女御)가 되는 여식인 후지와라 호시(藤原芳子)가 미혼일 때 여성이 익혀두어야 할 교육내용에 관해 당부한 내용을 데이시 중궁(定子中宮)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교양으로 요구된 것은 ‘습자 연습, 음악(칠현금타기), 와카 암송’이었다. 이 중 습자는 가나 문자의 연습이었다. 이들 세 항목은 남성 또한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사항이었지만, 남성에게는 여기에 더하여 한자 쓰기와 한문 읽기가 요구되었다. 헤이안 시대에 여성들은 ‘온나테’(女手)라고 하여 여성 문자를 의미하는 가나 문자를 배워 능숙하게 쓰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남성은 ‘오토코테’(男手), ‘마나’(真名)라고 불린 한자를 배워 한문서적을 읽는 것이 요구되었다. 여성이 한문서적을 읽는 것은 『무라사키시키투 일기』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다.²⁵⁾ 적어도 헤이안 시대인 11세기 초까지 여성이 마나를 배우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문을 배우는 여성들 또한 여전히 존재하였다.

헤이안 시대 초기의 여성교육에 관해 비록 허구의 모노가타리이기는 하지만 문헌에 기록된 첫 자료는 12세기 말 헤이안 시대 말기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진 『다가무라 모노가타리』(篋物語)²⁶⁾에 그려진 내용이다. 헤

24) 藤岡忠美・中野幸一 他 校注・訳(1994),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6, 東京: 小学館, p. 204.

25) 물론 『무라사키시키투 일기』에는 무라사키시키투가 쇼시 중궁(彰子中宮)에게 『백씨문집』 「신악부」(新樂府)를 강설(講說)하는 장면(pp. 209-210) 등 한문지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이 시대 전체적인 여성교육에 관한 인식으로 볼 때 마나 지식까지는 요구되지 않았다.

이안 시대 전기의 귀족 문인이었던 오노 다카무라(小野篁)를 주인공으로 한 이 작품의 전반부는, 대학寮(大學寮)의 학생이었던 다카무라가 배다른 누이동생에게 한적(漢籍)을 가르치다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누이동생은 부모의 반대로 간혀 있다가 식음을 전폐한 채 죽은 뒤 망령이 되어 나타난다는 비련의 이야기이다. 누이동생은 부모가 몹시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딸이었는데, 여자가 배울 만한 것은 모두 배웠기에, 부모가 이제 “서책(書)을 읽히자”고 생각하여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며 이 북오빠인 다카무라에게 가르치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헤이안 시대, 특히 초기의 귀족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익힌 뒤에는 가족 등 가까운 친인척의 지도로 한문을 배우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지와라(藤原) 일문의 영화를 기록한 『에이가 모노가타리』(榮花物語)와 『오카가미』(大鏡)에 기술된, 다카시나 나리타다(高階成忠)가 딸인 기시(貴子)에게 와카와 한시문의 교양을 쌓게 하여 여관(女官)으로 출사하기를 바랐다는 대목은 한문에 조예가 깊은 여성들 또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녀는 한문의 교양이 요구되는 장시(掌侍)라는 여관으로 일하였고, 후지와라 미치타카(藤原道隆)와 결혼한 뒤에는 이치조 천황(一條天皇, 재위 986-1011)의 중궁이 되는 딸 테이시(定子)와 아들들을 직접 가르쳤다. 이러한 그녀에 대해 『에이가 모노가타리』에서는 나리타다가 딸인 기시를 어여뻐 여겨 결혼보다는 여관으로 일하기를 바라 출사시켰는데, 기시가 “여자이기는 하지만 마나 등을 참으로 잘 썼기에, 내시로 임명받으셔서 고 내시(高內侍)로 불리었다”²⁷⁾고 상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카가미』에서는, 고 내시라 불리던 기시는 본격적인

26) 遠藤嘉基・松尾聡 校注(1964), 『篁物語 平中物語 濱松中納言物語』, 日本古典文学大系 77, 東京: 岩波書店.

27) 山中裕 他 校注・訳(1995), 『榮花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31, 東京: 小学館, pp. 142-143.

한시인으로서 천황이 주최하는 시연에도 참석하여 시를 지어 올렸는데 그 솜씨가 웬만한 남성보다도 뛰어났으며, 이러한 그녀를 두고 “여자가 너무 재주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²⁸⁾고 세간에서 수군거렸으며, 뒷날 남편인 미치타카가 죽은 뒤 그 집안이 영락한 것 또한 그 탓이라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성의 한문지식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에이가 모노가타리』의 작자가 여성, 『오카가미』의 작자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차에서 기인한 여성관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헤이안 시대 여성교육의 방침과 학습 방법은 가정환경에 따라 달랐지만 주로 개인 교수 형식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성에게는 가나 문자의 습자가 장려되었으나 교육은 공공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나=남성의 지식’이라는 인식은 그 시대 여성들에게도 내면화되어 가나 문자는 ‘승인’되고 한자는 ‘금지’되는 여성 리터러시의 이중적인 잣대가 작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⁹⁾ 그러던 여성의 문자교육관이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鎌倉・室町時代)를 거쳐 18세기 초 에도 시대의 『와조쿠도지쿤』 권5 『교여자법』에 이르러서는 가나 문자와 더불어 한자의 습자도 권장하는 기술이 나타날 정도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열 살 때부터는 집 안에만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여성의 지식과 교양이 “가정 담당자로서의 지식”³⁰⁾으로 집 안에 머물고 있을 뿐

28) 橘健二·加藤静子 校注・訳(1996), 『大鏡』,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34, 東京: 小学館, pp. 258-259.

29) 이러한 헤이안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에 관한 이중 잣대는 조선시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인식이었다. 이경하 씨에 따르면, 16세기와 18세기 조선시대 지식인 남성들에게 견지되는 여성의 문자교육에 대한 입장은 “금지와 승인의 이중적인 면”을 지니며, “한글사용보다 한문사용에서, 읽기보다 쓰기에서, 일상적·사적 글 쓰기보다 문예적·공적 글쓰기에서 여성의 어문활동에 대한 암묵적인 ‘금지’의 수위는 더 높고 엄격”하였다고 한다. - 이경하(2010),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 321.

집 밖으로 개방될 수 없다는, 이 또한 다른 의미의 ‘승인’과 ‘금지’의 이중적인 성격이 에도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남성 지배층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시각은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지만, 에도 시대 때는 상업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서간의 왕복, 계약서의 교환, 주문장이나 장부 등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다 막부의 통치 또한 문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민들은 문자와 기본적인 산술 등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 또한 중시되어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산 활동과 상업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기관인 ‘데라코야’에서는 남자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졌고, 이는 여성교육을 확산시키고 그를 통해 여성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나가는 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라코야’에 입학하는 연령은 6-8세가 많았고, 매일 6-7시간씩 2-3년간의 교육기간이 보통이었는데, ‘읽기(讀), 쓰기(書), 셈하기(算盤)’ 등이 주된 교육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습자를 통한 읽기와 쓰기는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되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자아이의 취학률은 낮았지만, 에도, 오사카, 교토(京都) 등에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데라코야’도 꽤 있었다. 도시에서 여자아이들의 취학률이 높았던 것은, 여성도 상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웃과 친인척과의 교류와 가게의 운영과 축재 등을 담당하는 가정 담당자인 ‘오카미산’(おかみさん) 후보인 여자아이들에게는 ‘읽기, 쓰기, 셈하기’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교양도 요구되어 다도와 꽃꽂이, 그림, 바느질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도 적지 않았다. “교

30) 女性史総合研究会 編(1990), 『日本女性生活史 3 近世』,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 175.

양은 생활 제일선에 서 있었던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요구³¹⁾되었다. ‘테라코야’를 경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당시의 지식계층이었던 무사와 승려들뿐만 아니라, 서민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소수이지만 여성이 경영하는 곳도 있었다. 여성이 경영하는 에도나 오사카 등 대도시의 ‘테라코야’에는 여자 사범도 많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곳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여자아이들이 읽기와 쓰기를 익히는 습자를 하면서 문자를 배우고 그 내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일상적인 예의작법, 교훈 등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과서가 여성용 ‘왕래물’이었다. ‘테라코야’의 교과서인 왕래물은 에도 시대에 7천여 종 출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천여 종이 여성용 ‘왕래물’로 추정되고 있다.³²⁾ 여성용 ‘왕래물’은 크게 “교훈형·소식형(消息型)·사회형·지육형(知育型)”이라는 네 종류³³⁾로 나눌 수 있는데, 서민을 교육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것이 종래의 유교적인 여성 교훈서 등의 요지를 짧게 기술하여 습자용 교과서로 만든 교훈형 여성 ‘왕래물’이었다.

일본에 유교적인 여성교육과 여성 교훈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에도 시대 전기인 17세기 중반이었다. 처음에는 『조균쇼』(女訓抄, 1643) 등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여성의 교훈과 교양을 기술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중국에서 전해져온 여사서를 번역한 『여계·여효경·여논어·내훈』(女誠·女孝經·女論語·內訓, 1656) 등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주자학이 무가정치 의 기반이 되면서 가부장제의 확립과 “‘이에’를 존속시키고 강화시키

31) 久保田信之(1988), p. 73.

32) 中江克己(2007), p. 153.

33) 梅村佳世(2010), 「女子教育・女性教養の近世的展開」, 『身分のなかの女性』(藪田貫・柳谷慶子 編, 東京: 吉川弘文館, p. 59.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로는 『온나이가와』(女今川), 소식형(消息型) 여성용 ‘왕래물’로는 『온나 소식 왕래』(女消息往來), 사회형 여성용 ‘왕래물’로는 『세계풍속 왕래』(世界風俗往來), 지육형(知育型) 여성용 ‘왕래물’로는 『온나쇼바이 왕래』(女商売往來) 등을 들 수 있다.

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영위되었던 것이 근세 사회의 가정교육³⁴⁾이었다. 이에, 여성에 대한 유교적 교육이 필요하게 되어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여성 교훈서가 등장하게 되었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유교적인 여성 교훈서는 더 짧고 쉽게 쓰여 여성을 위한 습자용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훈형 여성 ‘왕래물’은 교토, 오사카, 에도의 유명 출판업자 등을 통해 유통되는데 본문은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 쓰고 한자에는 음을 달아 읽기 쉽게 만들고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도와, 읽으면서 내용을 익힘과 동시에 문자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민층에 쉽게 보급되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교훈, 문예적 교양, 실용적(가사·육아) 지식, 여성의 제 신분·직종에 관한 지식을 포함해 구성³⁵⁾되었다. 가정교훈과 예의범절을 다룬 『온나테이킨 왕래』(女庭訓往來), 상인 집안의 여성으로서 명심해야 할 일반적인 생활원리부터 계절에 따른 인사말, 연중행사 안내, 이웃과 교제하는 법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내용이 담긴 『온나쇼바이 왕래』(女商売往來, 1896) 등이 일상적인 지식과 예의작법 등을 익힐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에도시대 여성의 리터러시는 단순히 읽고 쓰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일차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문화와 가치관을 여성 일반에게 확산 시키려는 ‘문화적 리터러시’로 확대되고 다양화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습자와 독본(讀本) 교과서를 겸한 ‘여대학’이라는 제명이 붙은 일군의 서책인 ‘여대학’류의 교훈형 여성 ‘왕래물’이었다.

‘여대학’류의 교훈형 여성 ‘왕래물’보다 먼저 나와 습자와 교훈을 가르치는 여성용 교과서로 주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온나이마가와와』(女今川, 1687, 1700)라는 왕래물이었다. 무로마치 시대 저명한 무인이자 문인이었던 이미가와 료순(今川了俊, 1326-1414경)이 남긴 가훈인 『이마가

34) 石川松太郎 編(1977), p. 298.

35) 横田冬彦(1995), 『「女大学」再考—日本近世における女性労働』, 『ジェンダーの日本史 下』(脇田晴子・S. B. ハンレー 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p. 367.

와조』(今川状)를 본떠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마음가짐을 ‘~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조항 23개조로 정리한 것으로, ‘온나이마가와 다카라 문고』(女今川寶文庫)라는 책을 보면, 본문 첫머리에 “이마가와를 본떠 스스로를 경계하는 제사(制詞)의 조목들”이라는 기술이 있고, 그 뒤에 23개조의 주의할 점과 이러한 훈계를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이 기술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이 놀이에 능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을 훈계하고, 부모의 깊은 은혜를 잊지 말고 남편에게 나를 내세우지 말며 천도(天道)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 분수를 알고 조신하게 행동할 것을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치고 깨우친”³⁶⁾ 것이다.



[그림 3] 『온나이마가와 다카라 문고』(女今川寶文庫) 표지 및 내용. 이미숙 소장

그 뒤를 이어 에도 시대 후기부터 여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교훈형 여성 ‘왕래물’이 바로 “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훈서·교과서의 대명사”³⁷⁾로 볼 수 있는 ‘여대학’이었다.³⁸⁾

36) 梅村佳世(2010), p. 60.

37) 石川松太郎 編(1977), p. 314.

4.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과 여성지식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인 ‘여대학’은 1716년에 출판된 작자 미상의 『여대학 다카라바코』(女大學寶箱)에 수록된 『여대학』 19개 조만을 인용하여 편찬하거나 내용을 더하여 편찬한 여성 교훈서의 총칭이다. 가나 문자와 한자를 같이 쓰고 한자에는 독음을 달아 읽기 쉽게 하고 그림을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그림 4] 『여대학 다카라바코』(女大學寶箱) 표지 및 「여대학」 첫 면. 이미숙 소장

『여대학』은 가이바라 에키켄이 1710년 81세 때 내놓은 『와조쿠도지쿤』 권5에 수록된 『교여자법』 18개 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된 것이다. 18개조에 걸친 『교여자법』에 담긴 여성교육의 내용은 여덕(女德)·화순(和順)·경순(敬順)·사행(四行: 婦德, 婦言, 婦容, 婦功)·교양·청결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 수신(修身) 교육, 여공(女功)·부공(婦功) 등의

38) 18-19세기 데라코야에서 사용되던 왕래물의 순서를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왕래물은 습자와 강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독 부분에서 『여대학』은 13위로 263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온나이마가와』는 15위로 183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乙竹岩造(1929), 『日本庶民教育史 下巻』, 東京: 目黒書店, p. 991. 여신희(2010), p. 288에서 재인용.

가사 교육, 삼종칠거(三從七去)·정절·다섯 종류의 나쁜 병 등의 유교적인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는 윤리 교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³⁹⁾

먼저, 『여대학 다카라바코』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여대학 다카라바코』의 내용 구성⁴⁰⁾

내용	면수(전체 135면)	분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1	교훈
농업지도(農業之圖)	4	직업
남도팔경지도(南都八景之圖)	2	문예
십이월색지 와카(十二月色紙和歌)	3	문예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회초(繪抄) 및 와카	14	문예
여대학(女大學)	86면의 2/3	교훈
여직인지도(女職人之圖)·여상인지도(女商人之圖)	86면의 1/3	직업
세사초(世嗣草)-부인 출산	10면의 1/3	실용
소아양육초(小兒やしなひ草)	13면의 1/3	실용
소아급병묘약(小兒急病妙藥)	1면의 1/3	실용
당토 이십사효(唐土二十四孝)	24면의 1/3	교훈
하쿠닌잇슈(百人一首)	25면의 1/3	문예

위의 내용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대학 다카라바코』는 「여대학」과 「당토 이십사효」 등의 교훈적인 내용은 66면 정도로 절반에 불과하고, 여성의 직업과 노동에 관계된 내용이 33면 정도,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와 『하쿠닌잇슈』(百人一首) 등 문예적인 교양에 관한 내용이 27면 정도, 그리고 실용적인 지식이 8면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대학 다카라바코』라는 여성용 ‘왕래물’은 단순히 유교적인 여성지식

39) 李美淑(2009), 「『尤庵先生戒女書』と『教女子法』-韓国と日本における儒教的な女性教育-」, 『女性百年-教育・結婚・職業-』(『女性百年』刊行委員会 編), 仙台: 東北大学出版会, pp. 104-105.

40) 横田冬彦(1995), p. 364.

을 주입·고취시키는 여성 교훈서로만 치부할 수 없다. 특히 일본 고전산문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젠지 모노가타리』와 뛰어난 와카(和歌)들을 골라 엮은 운문의 정수인 『하쿠닌잇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게 한 것은 상류계층 여성들 사이에서만 향유되었던 고전문예를 서민계층에까지 확대시켜 여성 교양의 보편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가이바라 에키켄의 『와조쿠도지쿤』 내 「교여자법」을 기반으로 한 『여대학 다카라바코』 내 「여대학」에 기술된 여성교육의 내용은 「교여자법」보다 후퇴하였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3절에서 인용한 바 있는 「교여자법」 2조와 8조의 내용이 「여대학」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와조쿠도지쿤』 내 「교여자법」과 『여대학 다카라바코』 내 「여대학」의 관련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여대학 다카라바코』 내 「여대학」과 『와조쿠도지쿤』 내 「교여자법」의 내용 관련⁴¹⁾

	「여대학」 19개 조 주요 내용	「교여자법」 18개 조와의 관련
제1조	여자는 성장하여 타인의 집으로 가 시 부모를 모시는 법이기에, 남자보다도 부모의 가르침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제1조, “여자는 오로지 부모의 가르침으로 입신(立身)하므로 부모의 가르침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과 유사.
제2조	여자는 용모보다도 마음이 뛰어난 게 좋다.	제3조 해당
제3조	여자는 어릴 때부터 남녀유별을 바르게 하여 결코 희롱하는 것을 보고 듣게 해서 안 된다.	제14조 해당

41) 石川松太郎 編(1977), pp. 307-310의 내용을 참조하고 원문과 비교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중 이시카와 씨는 「여대학」 제1조를 「교여자법」에는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하였으나,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교여자법」 제1조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여대학』 19개 조 주요 내용	『교여자법』 18개 조와의 관련
제4조	부인은 남편 집을 내 집으로 삼기에, 한번 시집가면 그 집을 나서지 않는 것이 여자의 길이다. 칠거지악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제17조 해당 제10조 해당
제5조	여자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이지만, 남편 집에 가서는 시부모를 친정부모보다도 중히 여겨 효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 해당
제6조	부인은 따로 주군이 없으니, 남편을 주인으로 여겨 섬겨야 한다.	제16조 제2항 해당
제7조	시동생과 시누이를 공경하고 의종계 지내야 한다.	제16조 제3항
제8조	질투심을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혹여 남편이 불의를 범하였다면 낮빛과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諫)하여야 한다.	제16조 제4항, 제5항 해당
제9조	언어를 삼가 많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제6항 해당
제10조	여자는 항상 마음을 써서 몸을 건실히 간수하여 지키고 바느질 등 여공(女功)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음란한 일을 보고 듣지 말며 마흔 전에는 사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다지 안 가는 게 좋다.	제16조 제7항, 제8항 한 문장 해당
제11조	무당과 박수무당에 현혹되어 신불을 모독하며 가까이 하여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제8항 해당
제12조	타인의 처가 되어서는 그 집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집안 분수에 맞게 살림하여야 한다.	제16조 제9항 해당
제13조	여자는 젊을 때 젊은 남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남녀유별을 굳게 지켜야 한다.	제16조 제10항 해당
제14조	의복은 정결하고 검소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1항 해당
제15조	친정부모 쪽을 우선하고 남편 쪽 친척을 그 다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제12항 해당

	『여대학』 19개 조 주요 내용	『교여자법』 18개 조와의 관련
제16조	여자는 자기 부모 집안을 잊지 않고 시부모 대를 이으므로 친정부모보다도 시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2항 해당 제9조 일부 해당
제17조	하인이 많이 있다 하여도 여자가 고생을 참으며 시부모, 남편을 보살피고 자식을 양육해야 한다.	제5조 해당
제18조	하녀나 천한 자들을 다룰 때는 마음을 써야 한다.	제16조 제13항 해당
제19조 및 결어	여자는 순종하지 않고, 화내고 원망하며, 타인을 비방하며, 질투하며, 지혜가 얕은 마음씨 나쁜 다섯 종류 병을 지니고 있어 남자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어릴 때부터 여자를 잘 훈육하여야 한다.	제18조 해당 제16조 결어 해당

위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대학』은 『교여자법』 1조, 3조, 5조, 9조, 10조, 14조, 16조, 17조, 18조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교여자법』에 담긴 여성교육에 관한 선진적인 조항이었던 2조와 8조, 즉 여성교육이 남성교육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여성문자인 가나 문자는 물론이고 남성문자인 한자까지 배우도록 해야 하며, 와카를 많이 읽어 교양을 쌓아야 하고, 글자를 바르게 쓰고 산수를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 기술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시카와 마쓰타로 씨는 “『여대학』은 정확히 말하면 『교여자법』에 표명되었던 인간의 가치 평등관을 완전히 사상해버리고, 이것을 전개한 구체적인 여자교육의 방침, 방법, 내용의, 그것도 일부만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 기술된 것”⁴²⁾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시카와 씨의 주장 중 여자교육의 방침, 방법, 내용 “일부만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 기술된 것”이라는 주장은, 『교여자법』 4조, 6조, 7조, 11조, 12조, 13조, 15조는 그 내용이 비록 『여대학』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이

42) 石川松太郎 編(1977), p. 313.

집안사람이라는 것, 여성의 덕과 집안일 등등 유교적인 여성상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그대로 『여대학』에 수용되어 있다고 보여 재고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핵심적인 주장이 “『교여자법』에 표명되었던 인간의 가치 평등관을 완전히 사상”해버렸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나카노 세쓰코(中野節子) 씨는 『여대학』 본문만으로 『교여자법』과 비교해서는 안 되며 『여대학 다카라바코』 전체가 『교여자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나 문자나 한자를 같이 배우고 바르게 쓰는 점에 관해서는 교훈으로 문장화되어 있지 않아도 가나 문자와 한자가 섞여 있는 『여대학』을 습자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어 『교여자법』의 가르침이 구체화·현실화되어 있으며, 제2조 남녀 공통의 교육법에 관해서는 『여대학 다카라바코』 『소아양육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대학』은 문장에서 볼 때 여성 가나 문화의 상실로 향하는 길을 결정적으로 만들어 종래 여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였던 남성 문자문화로 여성을 이끄는 길을 연 것”이라는 주장이다.⁴³⁾ 『여대학 다카라바코』 전체가 『교여자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나카노 씨의 지적은 시사적이며, 『교여자법』 8조에서 강조하였던 『겐지 모노가타리』나 『햅쿠닌잇슈』에 관한 고전문예에 관한 교양 또한 『여대학 다카라바코』 안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는 점도 나카노 씨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43) 中野節子(1997), 『考える女たち—仮名草子から「女大学」』, 東京: 大空社, p. 220, p. 233, pp. 236-237.



[그림 5] 『여대학 다카라바코』(女大學寶箱) 내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이미숙 소장

하지만 이후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로 유통되고 향유된 것이 『교여자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린 『여대학 다카라바코』가 아니라, 그 일부분인 『여대학』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다른 내용을 첨가하여 제작한 ‘여대학’류였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대학 다카라바코』와 ‘여대학’류에 담긴 여성지식은 변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여대학’류의 여성지식은 『여대학 다카라바코』의 종합적인 여성지식이 아니라 여성에게 유교이념을 고취시키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종속화하려는 여성지식으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에도 시대 후기 여성교육의 대표적인 텍스트였던 『여대학』에 담긴 여성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때 주목할 점이 『교여자법』 제9조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의 집에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에게 따른다”⁴⁴⁾는 삼종지도에 관한 기술이 『여대학』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대학』 제6조에 “부인은 따로 주군이 없다. 남편을 주군으로 여겨 공경하고 삼가 모셔야 한다”⁴⁵⁾라는 구절이 있어 남편을 따르라는 내용은 있지만, 부

44) 石川松太郎 編(1977), p. 12.

친과 자식을 따르라는 구절은 빠져 있다. 그 대신 『여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결혼한 여성이 혼가(婚家), 즉 시가의 일원으로서 시가 및 시가 식구들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가의 일원으로서 여성이 지켜야 하고 행동해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인은 남편의 집을 내 집으로 삼기에, 중국(唐土)에서는 시집 가는 것을 ‘돌아간다’라고 한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 (제4조)
- 여자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부모에게 오로지 효도를 하는 법이다. 하지만 남편 집으로 가서는 오로지 시부모를 내 부모보다도 중히 여겨 극진히 경애하고 효도를 다해야 한다. 부모 쪽을 중히 여겨 시부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 (제5조)
- 시아주버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남편의 형제이기에 공경해야 한다. 남편 친척에게 비방당하고 미움을 받으면 시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몸을 위하여서도 좋지 않다. …… (제7조)
- 내 친정 부모 쪽을 내 몸처럼 여기고 남편 쪽 친척을 다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제15조)
- 여자는 내 부모 집을 잊지 않고 시부모 대를 잊기 때문에 내 부모보다도 시부모를 소중히 여겨 효도를 다해야 한다. 시집을 간 뒤에는 내 부모 집에 가는 것도 가끔이어야 한다. …… (제16조)⁴⁵⁾

위의 조항들 중 제16조를 보면, 여성을 왜 친정이 아닌 시가에 소속된 존재로 규정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여대학』에서 삼중지도를

45) 石川松太郎 編(1977), p. 40.

46) 石川松太郎 編(1977), p. 34, p. 40, p. 50.

강조하지 않고 여성을 시가의 일원으로 한정시키려 한 것은 남성 가부장적인 ‘이에’ 제도를 고착시키는 데 복무할 수 있는 여성을 교육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여자법』 제10조에 규정된 칠거지악에서는 그 예외 규정으로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악질(惡疾)에 걸리는 것은 “이 둘은 하늘의 뜻이라 힘이 미칠 수 없는 일이기에 여성의 죄가 아니”⁴⁷⁾므로 여성을 내쫓을 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지만, 『여대학』 제4조에서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빼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여대학』에서는 시가에서 여성이 후사를 잇도록 자식을 낳는 것이 중요한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대학』은 같은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인 『와조쿠도지쿤』의 『교여자법』이 강조하고 있던 여성교육의 이념, 종합적인 여성지식을 담고 있던 『여대학 다카라바코』보다 더욱더 여성에게 유교이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종속화하려는 여성지식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도 시대의 여성교육은 여성에게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추게 하여 가족제도를 존속·강화시켜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집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던 에도 시대 이전의 소수에 한정되었던 여성교육의 틀을 확대하여 여성들에게 균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여성들이 읽고 쓰기 능력과 교양을 갖추면서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의식 또한 제고되었다는 측면 또한 함께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에도 시대 대표적인 여성지식인인 하라 사이힌(原采蘋)과 다다노 마쿠즈(只野真葛)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라 사이힌은 근세 3대 여성 한시인⁴⁸⁾의 한 명으로 꼽힌다. 1798년 규슈(九州) 아키즈키 번(秋月藩)의 유

47) 石川松太郎 編(1977), p. 13.

48) 그 밖에 두 명은 에마 사이코(江馬細香, 1787-1861)와 야나가와 고린(梁川紅蘭, 1804-1879).

학자 딸로 태어나, 부친에게 한문과 시, 서도를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따라 각지를 여행하며 문인묵객들과 교류하였고 한시인으로 대성하기 위해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재덕을 겸비하였던 가이바라 예키켄의 부인을 이상적으로 평가하여 교양과 학문을 체득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스무 살 무렵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가숙(家塾)에서 가르칠 만큼 학식을 지니고 있었고, 부친 사후 이십대 후반부터 일생 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다. 여행 중 쓴 시들을 모은 시집으로는 『동유만초』(東遊漫草)와 『사이힌 시집』(采蘋詩集) 등이 있다.⁴⁹⁾

다다노 마쿠즈는 1763년 센다이 번(仙台藩) 번의(藩医)인 구도 헤이스케(工藤平助)의 딸로 에도에서 태어났다. 마쿠즈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읽기, 습자, 바느질’ 등을 배우고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신코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등 와가와 모노가타리를 외울 정도의 교육을 받았던 터라, 마쿠즈의 교육에도 열심이었다. 모친은 일찍 결혼하여 자식을 두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마쿠즈를 무가로 봉공을 보내 그녀는 10여 년간 센다이 번주(藩主) 부인 등의 시중을 들었다. 36세 때 집안을 위해 센다이 번의 관리자인 다다노 이가(只野伊賀)의 후처가 되었다. 남편을 여윈 뒤 55세 때인 1817년에 막번제(幕藩制) 사회를 비판한 『독고』(独考) 3권을 저술하여 여성을 종속적으로 보는 유교의 여성관을 비판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국학(国学)과 난학(蘭学)이라는 막번제 해체기의 사상이 존재하였다. 국학은 일본의 고전연구를 통해 ‘정’의 세계를 중시하여 유교의 규범주의를 비판하였고,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여성의 종속성을 부정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마쿠즈는 어릴 때부터 부친의 영향으로 국학자인 가모 마부치(賀茂真淵, 1697-1769)와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의 책으로 공부하였고, 집에 드

49) 脇田晴子 他 編(1987), pp. 176-178; 前田淑(1998), 『近世閨秀詩人原采蘋と房総の旅』, 『文化と女性』(総合女性史研究会 編), 東京: 吉川弘文館, pp. 279-301에 하라 사이힌에 관한 지적이 있다.

나들던 난학자들의 여성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독고』의 원고를 당대 유명한 희작 작가인 다키자와 바킨(滝沢馬琴, 1767-1848)에게 보내 출판하러 하였으나 바킨의 비판을 받고 출판되지 못한 일화는 유명하다.⁵⁰⁾

다다노 마쿠즈의 어머니가 딸을 일찍 결혼시키지 않고 무사 집안으로 봉공을 보내거나 하라 사이히이 한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한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들 에도 시대 여성지식인의 삶은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 등에서 가르쳤던 유교적 여성교육과는 배치된다. 이는 에도 시대에 유교적 여성교육이 ‘다테마에’(建前)로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성들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드러낸다. “문식 활동의 목적은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위치와 목소리를 표현(representation)하고 또 문식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소리를 재구성(reconstruction)하기 위함”이며 “문식 활동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도구”⁵¹⁾이기 때문이다. 즉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는 읽고 쓰기라는 기본적인 문해 능력과 고전문예적인 교양, 그리고 유교적인 여성지식을 갖춘 여성들을 배출시켜, 유교적 여성교육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여성들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를 표현해 내고 자기 자리를 찾아나가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0) 脇田晴子 他 編(1987), pp. 173-175; 籾田貫(1996), 『女性史としての近世』, 東京: 校倉書房, pp. 187-189; 総合女性史研究会 編(2000),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東京: 吉川弘文館, pp. 96-97에 다다노 마쿠즈에 관한 지적이 있다.

51)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pp. 369-370.

5.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에도 시대를 전후하여 여성교육을 둘러싼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데라코야’(寺子屋)라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왕래물’이라는 교과서로 여성들이 획득한 문자 해득이라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내용과 더불어, 여성들이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을 통해 어떠한 여성지식을 획득하였는가 하는 ‘문화적 리터러시’의 측면 또한 함께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여대학’으로 대표되는 교훈형 여성용 ‘왕래물’은 여성의 문자 해득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성의 성별지식을 재생산하였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유교적인 여성지식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가이바라 예키켄(貝原益軒)의 『와조쿠도지쿤』(和俗童子訓) 권5 「교여자법」(敎女子法, 1710), 『여대학 다카라바코』(女大學寶箱, 1716), 그리고 「여대학」 순으로 갈수록 더욱더 여성에게 유교이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종속화하려는 여성지식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첫째로 에도 시대 여성의 리터러시가 읽고 쓰기라는 ‘기능적 리터러시’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시대의 규범 및 가치관이 반영된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 둘째로 에도 시대의 여성교육은 종래 많이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여성에게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추게 하여 가족제도를 존속·강화시켜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집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던 에도 시대 이전의 소수에 한정되었던 여성교육의 틀을 확대하여 균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여성들이 읽고 쓰기 능력과 교양을 갖추면서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의식 또한 제고되었다는 측면 또한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에도 시대 여성교육 및 여성의 리터러시는 근대적인 젠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계

를 지니고 있었을 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제사회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확장해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아울러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습자교육을 통한 실생활에서의 활용, 일본 고전문예에 대한 소양을 강조한 『여대학 다카라바코』 등의 여성용 ‘왕래물’의 내용과 기능은 동아시아 공통의 유교적인 여성 교훈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중세 성별지식과 큰 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고유의 여성교육의 일단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 료】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2011), 『내훈』, 문명텍스트 5, 파주: 한길사.

石川松太郎 編(1977), 『女大学集』, 東洋文庫 302, 東京: 平凡社.

遠藤嘉基・松尾聡 校注(1964), 『篁物語 平中物語 濱松中納言物語』, 日本古典文学大系 77, 東京: 岩波書店.

式亭三馬 著, 神保五彌 校注(1989), 『浮世風呂 戲場粹言幕の外 大千世界楽屋探』, 新日本古典文学大系 86, 東京: 岩波書店.

橘健二・加藤静子 校注・訳(1996), 『大鏡』,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34, 東京: 小学館.

藤岡忠美・中野幸一 他 校注・訳(1994), 『和泉式部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 讃岐典侍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26, 東京: 小学館.

松尾聡・永井和子 校注・訳(1997), 『枕草子』,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18, 東京: 小学館.

山中裕 他 校注・訳(1995), 『栄花物語 ①』,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31, 東京: 小学館.

【논 저】

소동호(1982), 「日本 近世 庶民教育의 發達(II)－寺子屋의 道德教育과 庶民社會의 道德에 關하여－」, 『인문논총』 10권,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여신호(2010), 「전근대 일본사회의 교육제도와 이념－서민교육의 중심 寺子屋－」, 『교육문화연구』 제16권 2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이경하(2010),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李美淑(2009), 「『尤庵先生戒女書』と『教女子法』－韓国と日本における儒教的な女性教育－」, 『女性百年－教育・結婚・職業－』(『女性百年』刊行委員会

- 編), 仙台: 東北大学出版会.
- 梅村佳世(2010), 『女子教育・女性教養の近世的展開』, 『身分のなかの女性』(籾田貫・柳谷慶子 編), 東京: 吉川弘文館.
- 大石学(2007), 『江戸の教育力』, 東京: 東京学芸大学出版会.
- 乙竹岩造(1929), 『日本庶民教育史 下巻』, 東京: 目黒書店.
- 石川松太郎(1978), 『藩校と寺子屋』, 東京: 教育社.
- 小柳正司(2010), 『リテラシーの地平』, 岡山: 大学教育出版.
- 久保田信之(1988), 『江戸時代の人づくり—胎教から寺子屋・藩校まで』, 東京: 日本教文社.
- 女性史総合研究会 編(1990), 『日本女性生活史 3 近世』,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総合女性史研究会 編(2000), 『史料にみる日本女性のあゆみ』, 東京: 吉川弘文館.
- 高橋敏(2007), 『江戸の教育力』, 東京: 筑摩書房.
- 中江克己(2007), 『江戸の躰と子育て』, 東京: 祥伝社.
- 中川善之助(1952), 『女大學批判』, 東京: 河出書房.
- 中野節子(1997), 『考える女たち—仮名草子から「女大学」』, 東京: 大空社.
- 前田淑(1998), 『近世閨秀詩人原采蘋と房総の旅』, 『文化と女性』(総合女性史研究会 編), 東京: 吉川弘文館.
- 松塚俊三・八鍬友広 編(2010), 『識字と読書—リテラシーの比較社会史』, 京都: 昭和堂.
- 八鍬友広(2013), 『明治期の往来物に関する研究—書式文例集の展開—』,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年報』第62集 第1号,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
- 籾田貫(1996), 『女性史としての近世』, 東京: 校倉書房.
- 横田冬彦(1995), 『「女大学」再考—日本近世における女性労働』, 『ジェンダーの日本史 下』(脇田晴子・S. B. ハンレー 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Richard Rubinger 著, 川村肇 訳(2008), 『日本人のリテラシー』, 東京: 柏書房.
- 脇田晴子 他 編(1987), 『日本女性史』, 東京: 吉川弘文館.

원고 접수일: 2015년 9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0월 19일

계재 확정일: 2015년 10월 29일

ABSTRACT

江戸時代における女性教育とリテラシー

- 教訓型の女性用「往来物」に注目して

李美淑*

本稿は江戸時代における教訓型の女性用「往来物」に注目し、江戸時代の女性教育の様相及び女性のリテラシー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な考察から、先ず、江戸時代の女性のリテラシーは読み書きという「機能的なリテラシー」の側面に止まらずその時代の規範及び価値観が反映された歴史性を帯びてい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次に、同じく儒教的な女性知識でありながら、貝原益軒の『和俗童子訓』巻五の「教女子法」(1710)、『女大學寶箱』(1716)、そして女訓書の代名詞と言われる「女大学」などにおける女性知識に違い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最後に、江戸時代の女性教育は女性にある程度の素養を身につけさせ家族制度を存続・強化させることによって家父長制を強化しようとする側面を当然持っている。その一方、江戸時代以前の限られた女の人々に家の中で閉鎖的に行われてきた女性教育の枠を越え、多くの女性たちに均質な教育の機会が提供されるようになり、女性たちが読み書き能力と教養を備えることによって支配層の意図とは

* ソウル大学校人文学研究院 HK研究教授

裏腹に自分自身と世界を見つめる意識をも高めたということをも推察できた。

要するに、江戸時代の女性教育及び女性のリテラシーは近代的なジェンダー論の観点からは限界を持っているとしても、封建制社会の中で女性たちが自分自身の居場所を確保し広げていく始発になったという側面をも持っており、この点をより積極的に評価すべきであると思われる。

